

### 북한의 혁명개념

#### 1. 서론

- 북한은 혁명 국가인가? 혁명을 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혁명인가? 그 시점과 종점은 어떻게 되는가?
- The Pacific revolutions. 부르주아 혁명 전통 ‘자유’-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평등’-중국 혁명(1911년 신해혁명~1949년 중공 수립)-북한 ‘혁명’?
- 혁명 전통의 창조. 재창조 (re)invention
- identity politics “운동사의 서술이 가장 예민한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는 공산사회”
- 북한의 자기정체성 인식과 대외(대남 통일)정책 목표

#### 2. 1945년 이전 혁명개념

- 1928-1945년까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단계
- 1930년대. 북한은 김일성의 동만주 항일무장투쟁이 북한 혁명사의 원점이라고 주장
  - 1930년 6월 장춘 카툰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영도간부회의
  - 김일성 현단계 조선혁명 성격은 ‘반제반봉건혁명’으로 규정. 수행 방침 (1) 항일무장투쟁노선 (2) 반일민족통일전선노선 (3) 자주적인 당의 창건
  - 1932년 4월 동만주 안도현에서 최초의 항일유격대 창설
  - 1933년 6월 왕청현에서 동만당간부회의. 김일성 (1) 종전의 소비에트정권을 반일 민족통일 전선에 기초한 인민혁명정부로 개편 ==> “동만 유격근거지에서 인민혁명정부 수립과 그 경험은 조선혁명의 구체적 조건에 적합한 정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원형을 가능하게 했다.”
  - 1936년 5월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 한철야, 백봉의 김일성 공식전기 기술 차이. 1941-1944년까지 김일성에 대한 소련의 후원에 대한 침묵

#### 3. 해방~한국전쟁까지

- 한국전쟁 전까지는 반제반봉건=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상정, 전쟁 이후 북조선인민위원회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규정, 사회주의 이행기로 봄
- 민주기지론
- 북한지역을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전략적 거점, 보루로 삼음

#### 4. 1953년 한국전쟁 이후

- 남북한 이중혁명론
- “현계단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혁명의 성격과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1954.12.29. (김일성저작집 9,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남한과 북한에서 상이한 혁명 단계.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완수. 식민지 반봉건사회에서 인민민주주의 사회로 변천. 이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 혁명의 원천지인

민주기지.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 동반. 노동자, 농민 동맹 공고. 전체 근로인민의 창조적 열성 동원. 당 중심 집결. 당원들의 계급교양사업 강화 과제.

-남조선 혁명=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

-1960년 8.15해방 15주년 경축대회, 남북조선연방제 제안. 남조선혁명 위한 통일전선전술.

○ 자력갱생과 주체

- 1960년 김일성 주체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선전선동 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55.12.28.) 1960년 5월 간행한 『김일성 선집』 4권에 발표

- “우리는 어떤 나라의 혁명도 아닌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 1955년 말부터 당내 소련계 축출 움직임, 1956년 8월 종파사건, 1957년 7월부터 본격적 반대파 숙청, 1960년 김일성 주체연설 발표 (사상비서 황장엽과 김일성이 새로 쓴 작문이라고 추정)

○ 소련원조 중단과 1962년 북한의 자력갱생 정책 선언

- “자력갱생의 혁명사상” 『근로자』 1962년 3월호)

- “조선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한다....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주체와 자력갱생의 입장을 가지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리성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근로자』, 1963년 6월호)

## 5. 1964-5년

○ 64년 2월 당중앙위 4기 제 8차 전원회의,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제시 (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

-목표: 미제국주의자들 몰아내고 민족해방 혁명(=통일) 완수/ 방법: 혁명역량 강화

(1) 북조선의 혁명역량 강화

-해방직후부터 유지한 혁명기지론

-정치적(조선 로동당 강화/ 인민대중-로동당-당 중앙위원회로의 단결/ 맑스-레닌주의 사상 교양개조). 경제적(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군사적(혁명적 무장력+조국 평화통일 양자에 모두 필요: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혁명이 평화적 방법으로 수행되건, 비평화적 방법으로 수행되건 관계없이 언제나 필요” 251) 역량 강화

(2) 남조선 혁명역량

-혁명의 주력군 양성

① 맑스-레닌주의당 영도 밑에 노동자, 농민 동원

② 통일전선 수립: 각계각층 군중을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포섭. 하층통일전선, 상층통일전선.

③ 반혁명세력 약화: 적군 와해사업 (군대를 인민의 편으로)

(3) 국제적 혁명역량

-사회주의 국가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신생독립국가, 중립국가들과의 연대 강화, 반미투쟁 지지

-수정주의 반대 투쟁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

○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김일성 연설 (1965.4.14.)

- 남조선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단계

- “조선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과 장기성의 근원은 미제침략군대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정책에 있다.” - 남한의 병참기지화.
- 투쟁대상: 미제, 국내 반동세력(일본잔재세력), 반공 사상
- 현단계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역량의 장성강화, 반미구국통일전선의 형성과 공고화/ 광범한 대중투쟁/ 마침내 혁명 승리 이룩하고자 할 것
- 3대 혁명역량 강화

○ 김일성 연설, 도.시.군 및 공장 당 책임서기협의회 (1967.3.17.-24)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함, “남조선혁명을 완수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모든 것을 종속시킬 것을 요구”, “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잘 할 것”

-베트남 사태와 한국의 출병에 자극, 한국 혁명 현실화 가능성

- 1967년 4월 이후 로동신문 논조는 유일사상체계, 주체, 수령 집중 강조로 일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8.9.7.)

-주권은 혁명의 기본문제. 노동계급의 주권 장악, 프롤레타리아 독재 강화해야 계급해방, 민족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달성 가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애국적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정권이다. 항일유격대: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정식화된 정권 구상: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부터 출발,)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 광범한 반일역량의 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혁명정부 수립 노선

-해방직후 좌우 모두 비판: ‘우경투항주의분자들’은 부르조아공화국, ‘극좌분자들’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 & 사회주의 혁명 수행 주장 - 사회발전의 객관적 요구 무시하고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뛰어넘으려 함

-곳곳에 인민위원회 조직/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노농동맹에 기초, 광범위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역량 망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한 인민정권. 인민민주주의 독재 기능 수행/ 기본과업은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완수,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기지 창설 ① 경제개혁: 토지개혁(몰수, 무상분배), 중요산업시설 국유화 ② 민주주의적 개혁: 노동법령, 남녀평등권법령 실시 ③ 민족간부 양성사업: 노농 출신 새 인텔리 육성 ④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 창건

-북한은 식민지적. 반봉건적 성격 완전 말소. 민주주의혁명 완수하고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넘어감

-민주선거 실시, 북조선인민위원회 창설: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해방직후~1948년 3월까지의 성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1948년 9월에 창건: 인민이 자기의 사회주의적 자주독립국가를 가지게 됨으로써 반혁명역량에 대한 혁명역량의 우세 보장.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반제반미투쟁, 계급투쟁

-북하는 5개년 계획에 의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 사회주의 제도 수립

## 6. 1970년대

○ 하나의 조선혁명과 두 개의 지역혁명론

- 남한 혁명의 성격: 기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정립
- 미국의 '2개의 조선 책동'에 대한 반발?
- 7.4 남북공동성명 (1972):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 조국통일 5대 강령(1973.6): 고려연방공화국 제안. 60년대 연방제는 경제·문화 &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 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은 정치, 외교, 군사 & 인민대중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구상

○ 1970년 노동당 제 5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및 1972년 제정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4조에서 주체사상을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

- 역사 원동력/ 혁명 주조와 유지에 대한 북한적 전유의 종착지
- 김정일로의 세습적 권력승계 문제: 김일성과 같은 혁명투쟁 경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카리스마적 인격성의 결여→주체의 강조, 경제혁명
- “우리 시대는 주체의 시대이며....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입니다.”
-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정일, '은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이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1974년 2월 19일)

- “레닌은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혁명리론을 내놓았으며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은 다름아닌 바로 레닌의 사상과 레닌이 내놓은 정책에 근거하여 투쟁함으로써 10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혁명도 처음에는 진독수의 우경투항주의로선, 리립삼의 좌경모험주의로선 때문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며 그후에도 숭한 파가 생겨 혁명에서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결국 모택동동지가 내놓은 사상에 근거하여 단결하였고 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끌수 있었습니다. 월남혁명도 호志明동지의 사상과 정책에 의거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며 또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 오직 전당이 하나의 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간부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며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21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1970년 7월 6일), 『김일성저작집 25권』.)

## 6. 결론

○ 북한 혁명개념의 정치철학적 함의, 정책적 함의

○ 탈식민 공산국가로서 혁명 전통의 창출과 재창출

(1) 끝없는 혁명?: 마르크스는 1850년 계급 철폐, 국가 폐지에 이르는 과도기로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요성 논의; 김정일은 공산주의 실현 이후에도 그 시기를 계속 연장시키는 논리 →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공산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 & 내부의 원수들의 반항을 면할 수 없기 때문,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혁명론)

(2) 공산 국가에서 대표.대의 문제의 해소

-민주집중제: 급진적 사회변혁을 위한 대중동원 ==>엘리트 혁명전위조직(중핵집단) ==>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

(3) 성공한 혁명 권력의 승계 문제: 카리스마적 정치권력자의 생애주기 연장 (권위의 비영속성을 대중적 사회동원과 대중적 정치교양으로 극복하려는 서사적 투쟁)

o now, 탈근대 공산국가는 어떤? 조선공산당 창건 70주년의 풍경